

獨行篇의 構成과 知人論에 關한 研究

張賢鎭* · 高炳熙* · 宋一炳*

I. 緒 論

東武 李濟馬先生은 1836년 陰曆 3月 19日에 나시어 1880년 45歲 되던 해에 儒略 일부를 지으신 후 1882년 47歲때 獨行篇¹⁾을 저술하시었다. 東武先生의 여러 저술 중 초기 저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哲學的 시발점을 알아 보는데 獨行篇의 意義가 있다고 보겠다. 그는 당시까지의 思想을 이용하여 자신의 言語로 다시 再創造해내는 독창적인 작업을 하시었으며 이는 현재에 와서 계속 새롭게 재해석 되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완전한 이해가 되지않은 많은 부분들이 후학들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獨行篇에서 그는 四象構造的 知人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四位一體²⁾ 개념으로서 현존하는 世界 여러 哲學思想 중에서 대상에 대한 認識方法으로는 인류가 설정해 놓은 가장 원형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認識方法인 것으로 볼 때에 그의 達人的인 업적은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사고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省察을 知人の 첫 단계로 설정한 것과 기존 儒學思想에서 보여준 觀念的인 省察이 아닌 대상의 명확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鄙薄貪懦者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장구한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精神的인 自律性³⁾을 강조하며 天性으로의 復歸 내지는 天性의 修養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아 精神醫學的인 접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스스로의 學問에 그는 옛 聖賢의 말을 빌어 우둔하다고 하며 끊임없이 學問할 것을 경고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희랍의 哲學者가 자신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있으니 현명하다⁴⁾라고 함을 연상하게 된다. 獨行篇은 東武의 哲學에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바 이에 著者는 그 전반적인 內容과 構成을 알아보고 獨行篇의 주요 내용인 知人論에 대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및 考察

(1) 獨行篇의 構成

獨行篇은 獨行의 정의, 仁義禮智에 대한 설명, 鄙薄貪懦에 대한 설명, 君子의 獨行과 處世, 四端과 臟器와의 연계, 君子의 慎獨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鄙薄貪懦者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2) 獨行 의 정의

獨行이란 遜世而中庸⁶⁾ 無悶하는 君子의 慎獨을 말하는 것으로서 獨行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盡其性→誠身→知人誠僞→不惑→正心→不動心
明其慾 立誠 獨行
熟攻其慾
摘發其慾
→遜世而中庸
無悶

盡其誠, 明其慾하고 熟攻其慾, 摘發其慾한다 함은 天性을 다하고 心慾을 가려내면 지극한 지실에 이른다는 것이고 결국 立誠의 경지가 된다. 즉,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연후에야 다른 사람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의심이 없고 바른 마음을 갖게 되어서

好而知其惡即 中立而不倚 惡而知其美即 和而不流 如此者 自然獨行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의 단점을 안다면 적절함을 지켜 치우치지 않게 되고,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안다면 섞여도 함께 휩쓸리지 않게 되어 결국 獨行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獨行이란 그 자체가 과정이자 목적이 되어 君子의 마음과 행동이며 그것은 慎獨과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자신을 진실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知人할 수 없으며 결국 獨行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으로

是故欲知人者 雖竭智千百而 若其誠不立即 終莫能知人之僞悉其情也

有知人之外面者 有知入之中心者 有知人之半中心者 知人亦有層層

라고하여 자기 자신의 立誠이 되어야 知人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며 知人에도 걸만

아는 것, 半 中心만 아는 것, 中心을 아는 것 등 여러 層이 있으며

不患人之不己知 而患不知人也⁷⁾

라는 孔子의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라는 교훈으로 주의를 주고있다.

(3) 仁義禮智에 대한 설명

獨行 의 전제 조건상 盡其性을 위해서는 天性을 다해야하는 과제가 있으므로 天性의 四大德目이라 할 수 있는 孟子의 四端⁸⁾ 즉, 仁義禮智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차례인 것이다. 仁義禮智 즉, 四端은 東武의 사상 개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하늘이 내린 性이라 이해되고 있다. 이는 衆人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聖人의 과제이기도 한 모든 인간의 똑같은 과제인 것이다. 聖인도 눈코입 귀가 달렸고 肺脾肝腎등 臟器를 가진 인간이라는 衆人과의 동질성을 바로 仁義禮智의 天性에 대해서도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후에 臟器와의 연결을 통하여 東醫壽世保元의 四端論⁹⁾에서 그 이론을 완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仁義禮智에 대한 이해를 東武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1) 禮者 仁者 義者 智者

禮者 顯允 仁者 樂易 義者 整齊 智者 闕達

라하여 辭讓之心 禮之端, 惻隱之心 仁之端, 羞惡之心 義之端, 是非之心 智之端의 孟子의 四端과는 다소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있다. 해석상 禮者는 顯允하다, 仁者는 樂易하다, 義者는 整齊하다, 智者는 闕達하다로 이해함이 옳을 듯하다.

2) 禮者(도표1 참조)

• 禮者는 計劃性이 있고 計劃性이 있는 사

람은 忠直하다.

· 세밀하고 확실하게 온전한 功績을 거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능히 緩急之勢를 안다.

· 知識과 度量이 寬雅하고 나아가고 그침이 端重함을 보아 사람됨이 計劃性이 있고 다른 사람을 恭敬할 줄 아는 것을 알 수 있다.

· 功績이루기를 기뻐하므로 好學多識하며 妄動하지 않으므로 세밀히 보고 신중히 경청할 줄 안다.

· 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性格과 節度, 사람의 능력을 관찰함에 능하고, 몸가짐을 신중히 할 수 있는 形勢를 지니고 있다.

· 일을 成就시키는데 뛰어나고 籌略에 뛰어나므로 大衆을 통솔하고 단속하는 일을 잘하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가는데 능숙하다.

3) 仁者(도표 1 참조)

· 仁者는 抱容력이 있고 抱容력이 있는 사람은 信賴感이 있다.

· 雄健하고 씩씩하여 天下를 塗炭에서 건지려는 마음이 있으므로 능히 強弱之形을 안다.

·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寬大하고 節度가 있음을 보아 사람됨이 抱容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恩惠를 베풀어 줌을 알 수 있다.

· 남의 업신여김을 부끄러워 하므로 남을 아끼고 계획하며 자기만 훌륭한 척하지 않으므로 못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쏠리는 것이다.

· 능히 굳세어질 수 있는 기백과 도량, 사람의 지혜를 크게 함에 능하고, 대중을 통솔할 수 있는 經綸을 지니고 있다.

· 못 사람을 抱容하는데 뛰어나고 상대편을 불러들이는데 뛰어나므로 상대편을 불러들여 못 사람을 두루 포섭하는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4) 義者(도표 1 참조)

· 義者는 有能하고 有能한 사람은 自立할 수 있다.

· 두텁고 무게가 있어 주변 나라를 安定시키려는 마음이 있으므로 멀거나 가까운 지역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능숙하다.

· 整齊하고 嚴淑하고 바르며 먼 곳 사람들을 懷柔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능함을 보아 사람됨이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름을 알 수 있다.

· 내부의 다스림을 도모하므로 남에게 존경을 받고 통솔할 수 있는 것이며 남을 속이지 않으므로 못 사람들의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다.

· 강인한 體力과 行動, 사람에게 行을 권함에 능하고,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方略이 있다.

· 몸을 조절하는데 뛰어나고 地方을 다스리는데 뛰어나므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고 地方 사람들을 어루만져 안정시켜주는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5) 智者(도표 1 참조)

· 智者는 재주가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은 勇氣가 있다.

· 관대하고 公平하여 못 사람들에게 公正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친하고 먼 사람들의 시기하는 일을 헐어 없앨 수 있다.

· 人材를 아끼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며 賞罰을 고르게 주는 것을 보아 사람됨이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을 아낌을 알 수 있다.

· 뜻 밖의 일에 늘 대비하므로 어진이를 登用함에 게으르지않고 스스로를 닦기를 좋아하므로 문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한다.

· 능히 부드러워지는 權變, 사람의 재능을 관찰함에 능하고, 백성을 부림에 便宜으로써함에 능하다.

禮 者	仁 者	義 者	智 者
顯允	樂易	整齊	闊達
禮者有謀	仁者有容	義者有能	智者有才
謀者有忠	容者有信	能者有立	才有勇
審固有收全功之心	雄壯有拯天下之心	敦重有定四方之心	寬平有公衆人之心
故能知緩急之勢	故能知強弱之形	故能知處遠邇之局	故能蕩親疏之猜
觀其誠度寬雅	觀其積而能散	觀其齊莊貞正	觀其愛材好善
進知端重	寬而有節	柔遠能邇	賞罰均平
讓而與人有敬也	容而與人有恩也	能而與人有誼也	才而與人有愛也
喜成功故好學多識	恥外侮故愛人好讓	圖內治故教人能帥	備不虞故急賢不怠
不妄動	不自大	不欺人	好自修
故能審視慎聽	故衆心歸之也	故衆心依之也	故好問好察
有能柔之性節	有能剛之氣字	有能強之體行	有能弱之權變
能察人之有能	能弘人之有知	能勵人之有行	能察人之有才
能之重之形勢	能統衆之經綸	能勉衆之方略	能使民之便宜
長於成功	長於容衆	長於率身	長於推惠
識者之能	量者之能	器者之能	局者之能
長於籌略	長於招納	長於地方	長於任使
善統持勢而	善招納人而	善安戢人而	善得人之力而
能於解紛而排難	能於範圍大衆	能於撫綏地方	能於順俗而動風

·혜택을 미치지함에 뛰어나고 책임을 맡겨 부리는데 뛰어나므로 사람의 힘을 얻고 현실에 순응하고 풍속을 바꾸는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다.

(4) 鄙薄貪鄙에 대한 설명

格致彙의 獨行篇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鄙薄貪鄙者들의 本性和 愁心 그리고 忠信廉解者들에 대한 질투심 및 인간이하의 動物로서 취급하여 그들의 기만에 대한 주의, 君子로서 대하는 方法, 끝없는 愁心

의 결과로 인한 불행한 종말등등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거짓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知人誠僞의 작업은 단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衆人, 小人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鄙薄貪鄙의 心愁을 밝혀 가려내어 君子行하게 하려는 것이며 君子는 더욱 知人誠僞에 밝아 君子로서의 處世에 完璧을 기하기 위함이니

能盡其性者 能盡人之性也 能明其愁者 能明人之愁也
 熟功己惡者 熟明人之惡也 輕動人善者 輕治

己之善也

今我亦欲熟功己惡而 不致輕勸人善也

자기의 本性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本性도 다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慾心을 밝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남의 慾心에 대해서도 밝게 알 수 있으며, 자신의 나쁜 점을 功擊하는데 能熟한 사람은 남의 나쁜 점을 밝히는데도 能熟하고, 輕率히 남에게 착한 행실을 권하는 사람은 착한 행실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도 輕率히 한다하며 지금 자신의 나쁜 점을 功擊하는 것을 能熟하게 하려고 할 뿐, 감히 輕率히 남에게 착한 행실을 권하려는 것이 아님을 東武는 강조하고 있다. 즉, 鄙薄貪儒者의 이해는 바로 자신에 대한 이해이며 鄙薄貪儒者에 대한 警惕는 바로 자신에 대한 경계인 것이다.

1) 鄙者 薄者 貪者 儒者

鄙者 陋焚 薄者 狡回 貪者 驕橫 儒者 詐僞

· 鄙者는 더럽고 거칠며, 薄者는 교활하고 거스르며, 貪者는 교만하고 횡포하며 儒者는 속임수와 거짓을 일삼는다.<도표 2-1 번>

· 鄙者는 자신은 게으르고 남은 부지런히 하도록 한다. 薄者는 자신은 가벼이 여기면서 남은 두터이 해 줄것을 바란다. 貪者는 자신은 높이고 남을 낮춘다. 儒者는 자신에게 넉넉하고 남에게 박절하다.<도표 2-3>

· 鄙者는 항상 權勢를 바라고, 薄者는 항상 名譽를 바라고, 貪者는 항상 財貨를 바라고, 儒者는 항상 地位를 바란다.<도표 2-4 번>

· 鄙者는 자신의 마음을 공손하게 하지 않고, 薄者는 자기 집안을 아끼지 않으며 貪者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儒者는 자기 몸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다.<도표 2-6 번>

· 鄙者와는 서로 도울 수 없고, 薄者와는

와는 서로 결탁할 수 없으며, 貪者와는 서로 보전할 수 없고, 儒者와는 더불어 일하지 못한다.<도표 2-7 번>

· 鄙者는 매번 남을 속이고, 薄者는 매번 남을 짓누르고, 貪者는 매번 남에게서 빼앗고, 儒者는 매번 남을 부린다.<도표 2-8 번>

· 鄙者는 오로지 속이는데(竊) 관심이 있고, 薄者는 오로지 업신여기는데(侮) 관심이 있고, 貪者는 오로지 빼앗는데(奪) 관심이 있고, 儒者는 오로지 질투하는데(妬) 관심이 있다.<도표 2-9 번>

· 鄙者는 못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薄者는 거동과 걸모습에 의지하고, 貪者는 자신의 수단에 의지하고, 儒者는 확실하지 않은 지식에 의지한다.<도표 2-10 번>

· 鄙者는 신뢰할 수 없는 점으로 일관되고, 薄者는 세태 탓에 일관되고, 貪者는 거만과 교활로 일관하고, 儒者는 영웅인 양 함에 일관한다.<도표 2-11 번>

· 鄙者는 忠厚한 양 꾸미고, 薄者는 고상하고 겸손한 양 꾸미고, 貪者는 준수하고 아름다운 양 꾸미고 儒者는 똑똑하고 능력있는 양 꾸민다.<도표 2-12 번>

· 鄙者는 반드시 모든 일을 주관하려 하고, 薄者는 반드시 화려하고 사치하려 하고, 貪者는 반드시 強盛해지길 바라고, 儒者는 반드시 위엄있고 중후하려 한다.<도표 2-14 번>

· 鄙者는 제멋대로 하려는 계획으로 가득하고, 薄者는 출세하여 영화를 누리려는 계획으로 가득하고, 貪者는 욕심을 채워 풍족해지려는 계획으로 가득하고, 儒者는 높고 크게 되려는 계획으로 가득하다.<도표 2-15 번>

· 鄙者는 남이 공로 세우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薄者는 남이 진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貪者는 남이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을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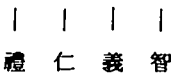
아하지 않고, 懦者는 남이 몸을 닦고 경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도표 2-16 번>

2) 鄙薄貪懦者와 仁義禮智

· 鄙者와 더불어 禮를 함께 할 수 없고, 薄者와 더불어 仁을 함께 할 수 없으며, 貪者와 더불어 義를 함께 할 수 없고, 懦者와 더불어 智를 함께 할 수 없다.<도표 2-5번>

· 鄙者는 다른 사람은 꺼리지 않으나 꼭한 사람 꺼리는 사람이 있다. 세밀하고 빈틈이 없는데다 禮가 완벽한 사람이다. 薄者는 은혜롭고 신의 있고 仁이 완벽한 사람을 꺼리며, 貪者는 재산을 경영하면서도 義가 완벽한 사람을 꺼리고, 懦者는 재간이 있으면서 첩가 완벽한 사람을 꺼린다.<도표 2-37 번>

상기한 바는 鄙 薄 貪 懦 의 연계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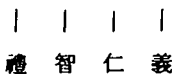
· 鄙者는 事功에 있어서 나약하고 주저하면서도 無禮한 뻔으려는(奪心)마음이 있고, 薄者는 行身은 잘고 까다로우면서도 不智한 교만한(驕心)마음이 있으며, 貪者는 用心에 있어 더럽고 지저분하면서도 不仁한 횡포한(橫心)마음이 있고, 懦者는 材力은 낮고 뒤떨어지면서도 無義한 잘난척하는(僭心)마음이 있다.

<도표 2-28번>

상기한 바는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의

人趨心慾有四不同 棄禮而方縱者 名曰 鄙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에서의 鄙 薄 貪 懦 와 같은 연계를 보여주



고 있다.

3) 鄙薄貪懦者와 忠信廉解者

· 鄙者는 忠者와 公器를 닦고, 薄者는 信者와 時世를 닦으며, 貪者는 廉者와 地局을 닦고, 懦者는 解者와 處世를 다룬다.<도표 2-2번>

· 鄙者-奸詐함으로 忠直함을 물리치는 술책이고, 薄者-桀이 堯를 쓰러뜨리는 술책이며, 貪者-愚鈍함으로 節廉을 제압하는 술책이고, 懦者-不肖로 賢明한 자를 이기는 술책이다.<도표 2-38 번>

상기한바 鄙薄貪懦者들은 忠信廉解者들에 대해 질투와 경쟁심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鄙薄貪懦者의 慾心이 忠信廉解者와 서로 상충되는데서 비롯하며 또한 鄙薄貪懦者들의 거짓 행동을 忠信廉解者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4) 鄙薄貪懦者와 慾心 私心 方心 佚心

· 鄙者의 慾心은 無厭하고, 薄者의 私心은 無窮하며, 貪者의 放心은 無極하고, 懦者의 佚心은 無歇하다.<도표 2-19 번>

慾心 私心 方心 佚心은 心四端인 辨學問思에 邪心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5) 鄙薄貪懦者와 心膽志意<도표 2-36 번>

· 鄙者之心 宜謹而不宜慢也 謹即 資身之策專也 慢即 招奸之術 毒也

· 薄者之膽 宜退而不宜進也 退即 愛物之誼嘉也 進即 無賢之量 敢也

· 貪者之志 宜緩而不宜急也 緩即 反本之悔得也 急即 虐民之計 險也

· 懦者之意 宜實而不宜凌也 實即 修身之誠到也 凌即 自尊之疑 成也

鄙薄貪懦者들에게 心膽志意를 謹退緩實하도록 노력하기를 충고하고 있다.

心膽志意는 物四端이다.

6) 鄙薄貪懦者의 喜怒哀樂

· 鄙者의 눈썹 끝에 싱글벙글하는 기쁜 빛

(喜色)

- 薄者の 턱가에 무뚝뚝하니 성난 빛(怒色)
- 貪者の 눈가에 근심스러운듯 슬픈 자태

(哀態)

- 儒者の 뺨위에 즐거운 표정(樂容) <도표 2-33 번>

獨行篇에서 나타난 喜怒哀樂의 표현은 鄙薄 貪懦者의 外面을 판단함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7) 鄙薄貪懦者와 憤懣 憂患 恐懼 好樂과 仁 義禮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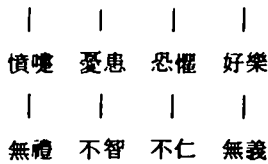
- 鄙者 恒有憤懣之心, 薄者 恒有憂患之心, 貪者 恒有恐懼之心, 懦者 恒有好樂之心

<도표 2-35 번>

- 無禮即格淚而忿嚏, 不智即無助而憂患, 不仁即不立而恐懼, 無義即偷惰而好樂

<儒 略>

이는 鄙 薄 貪 懦 로 연계됨을 보



여 준다.

8) 鄙薄貪懦者의 知人에 있어 表와 中

앞서 知人하는데 表만 아는 사람, 半中心만 아는 사람, 中心을 아는 사람등등 여러 층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表있어서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中에 있어서는 엄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在乎表者 莫良於眸子 在乎中者 莫良於廉恥 東武는 동물을 擬人化하여 鄙薄貪懦者들의 內面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廉恥를 가질 것을 충고하고 있으며 心慾에 싸인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하여 꾸짖고 있다.

- 鄙者의 眼孔은 청렴한 쪽에 등한하고, 게으름에 습관화되어 있고, 薄者의 眼孔은 은

혜와 신의를 신통치 않게 여기고, 끈고 신용있는 것을 하찮게 보며, 貪者의 眼孔은 총직과 의리를 업신여기고, 간사함과 속임수에 능숙하고, 懦者의 眼孔은 현명함과 재능을 등한시하고, 부지런하고 독실한 것을 교활한 것으로 본다.<도표 2-24 번>

- 貪狼의 外面은 忠貞이나 中心은 技心이고, 狡兎의 外面은 謙遜이나 中心은 恨心이며, 封豕의 外面은 俊秀이나 中心은 狼心이고, 妖狐의 外面은 從容이나 中心은 賣心이다.<도표 2-41 번>

- 貪狼이여! 愧心을 가져라. 狡兎여! 羞心을 가져라. 封豕여! 慚心을 가져라. 妖狐여! 作心을 가져라.<도표 2-42 번>

- 貪狼이여! 賊心을 버리고 敦心을 찾아라. 狡兎여! 背心을 버리고 篤心을 찾아라. 封豕여! 橫心을 버리고 愼心을 찾아라. 妖狐여! 殘心을 버리고 謹心을 찾아라.<도표 2-43 번>

(5) 君子의 獨行과 處世

獨行의 전제조건으로서 知人하는데 君子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惡人일지라도 仁義禮智가 있고 비록 好人일지라도 鄙薄貪懦의 慾心이 있기 때문이다.

雖惡人也 有仁義禮智之恒衷 雖好人也 有貪鄙 懦薄之陋慾

君子는 두루 많은 사람과 큰일을 하기에 작은 자기일에 몰두하는 小人이 君子를 가릴 수 있는 것이며 한 요망한 小人이 어리석은 백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다.

君子 兼人 任大 小人 私己 任小 任大 萬理難周 任小 一偏易察

所以 小人 掩君子 一妄 容易制百愚

君子는 항상 學問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鄙 者	薄 者	貪 者	懦 者
1	陋焚	狡回	驕橫	詐僞
2	與忠者爭公器	與信者爭時世	與廉者爭地局	與解者爭處世
3	鄙者之工績 自怠而動人	薄者之愛敬 自輕而重人	貪者之體統 自隆而汚人	懦者之報復 自厚而薄人
4	恒欲權勢	恒欲名譽	恒欲貨財	恒欲地位
5	不可與禮	不可與仁	不可與義	不可與智
6	不恭其心	不愛其家	不敬其業	不動其身
7	不可與佑	不可與結	不可與保	不可與爲
8	每每誣人	每每上人	每每并人	每每役人
9	專是竊也	專是侮也	專是奪也	專是妬也
10	自持衆力	自持儀表	自持手段	自持舞智
11	專是無賴也	專是世態也	專是巨猾也	專是僭雄也
12	假樣忠厚	假樣雅謙	假樣俊彥	假樣點能
13	可謂貪狼之心	可謂狡兔之心	可謂封豕之心	可謂妖狐之心
14	必圖主張	必圖華侈	必圖強盛	必圖威重
15	都是恣橫之計也	都是顯榮之計也	都是快足之計也	都是尊大之計也
16	不屑功勞	不層眞實	不屑動儉	不屑修來
17	眞無尊君抑臣之心	眞無愛幼敬長之心	眞無均力平貨之心	眞無動人自勉之心
18	在野不可與相成	在鄉不可與相依	在室不可與相謀	在衆不可與相得
19	慾心無厭也	私心無窮也	放心無極也	佚心無歇也
20	陰賊耿介者	陰賊惠愛者	陰賊直義者	陰賊行能者
21	愚弄懶怠者	愚弄貞諒者	愚弄奸譎	愚弄動篤者
22	合從人下者	締結在外者	朋黨人上者	和同在內者
23	能瞞富貴者	能詐英雄者	能 庸駑者	能 貧賤者
24	眼孔玩於廉隅而 慣於懶怠	眼孔狎於恩信而 繫於貞諒	眼孔弄於忠義而 能於奸譎	眼孔 於賢能而 狡於動篤
25	必見其陽又見其陰 乃知鄙心	必見其內又見其外 乃知薄情	必見其與又見其奪 乃知貪略	必見其親又見其疏 乃知懦弱
26	行匡直者 非實心而行匡直者	行和讓者 非實心而行和讓者	行恩惠者 非實心而行恩惠者	行公正者 非實心而行公正者
27	鄙者之悅耿介者 非眞心而悅之也 稍久即生慢心也	薄者之敬恩信者 非眞心而敬之也 稍久即生侮心也	貪者之恤忠義者 非眞心而恤之也 稍久即生賊心也	懦者之愛賢能者 非眞心而愛之也 稍久即生妬心也

	鄙者	薄者	貪者	懦者
28	事功懦이 無禮之奪心	行身苟小 不智之驕心	用心陋醜 不仁之橫心	材力卑劣 無義之僭心
29	鄙者之不肖 本無可謀者也	薄者之不肖 本無可得者也	貪者之不肖 自無可成者也	懦者之不肖 自無可依者也
30	鄙者之能 予奪之勸也	薄者之能 畏侮之勢也	貪者之能 強弱之形也	懦者之能 攻守之策也
31	鄙者之下愚 心厭乎積累之故也	薄者之下愚 心厭乎愛敬之故也	貪者之下愚 心厭乎均一之故也	懦者之下愚 心厭乎修省之故也
32	鄙者之心望 愈望而愈無極也	薄者之心閱 愈閱而愈無窮也	貪者之心圖 愈圖而愈繼多也	懦者之心玩 愈玩而愈繼利也
33	鄙者之眉端 施施然有喜色	薄者之頤邊 兀兀然有怒色	貪者之背間 戚戚然有哀態	懦者之觀上 欣欣然有樂容
34	不厭瞞也	不厭驕也	不厭賊也	不厭狡也
35	恒有憤懣之心	恒有憂患之心	恒有恐懼之心	恒有好樂之心
36	鄙者之心 宜謹而不宜慢也	薄者之膽 宜退而不宜進也	貪者之志 宜緩而不宜急也	懦者之意 宜實而不宜凌也
37	鄙者獨忌者 察密而禮全者也	薄者獨忌者 恩信而仁全者也	貪者獨忌者 經濟而義全者也	懦者獨忌者 材幹而智全者也
38	以奸橫忠之術	以桀傾堯之術	以頑制廉之術	以不肖勝賢之術
39	自多而簡他也	貴己而賤人也	必欲竝吞廣居也	必欲據取大位也
40	凌心必生也	傾心必生也	賊心必生也	掩心必生也
41	貪狼外面忠貞 中心技心	狡兔外面謙遜 中心恨心	封豕外面俊秀 中心狠心	妖狐外面從容 中心詐心
42	貪狼愧心	狡兔羞心	封豕漸心	妖狐作心
43	貪狼去汝賊心 反汝敦心	狡兔去汝背心 反汝篤心	封豕去汝橫心 反汝慎心	妖狐去汝殘心 反汝謹心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으로 君子는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배운 것을 생각하여도 명철함에 미치지않아 어리석음을 알게 된다고 하여 부지런히 學問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願言君子 夙夜思 學如不及 明己愚

또한 處世에 있어서 때를 보아가며 나설 것

을 강조하며 無知한 사람을 너무 酷毒하게 다루면 無告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正人深藏 不當其鋒 可也 渠本無知 亦不可酷毒治之

無知之人 酷毒治之 卽虐無告也

堯舜을 性者라하고 湯武는 反之라하고 衆人을 自棄, 桀紂를 自暴이라하여 네부류로 세상 사람을 구분하고 理義를 좇는 사람을 自附, 自棄者라 정의하고 慾利에 빠진 사람을 自陷, 自暴者라 정의하여 堯舜天下에는 自棄者가 善을 좇고 自暴者는 義가 두려워 善을 안 좇을 수 없게 되고, 桀紂天下에는 自暴者가 惡을 좇고 自棄者가 計利하여 惡을 안 좇을 수 없게 된다 하였다. 東武는 君子의 獨行이 결코 公名을 떨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天性을 다하게 하고 心慾을 가려내어 밝히는 노력임을 강조하며 君子의 處世에 있어 天性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선택할 것을 주장하며 다소 隱遁속의 中庸 無悶을 함리화한 경향이 있다.

知人에 있어서는 堯舜과 같은 연후에야 好賢하여 크게 길할 것이며, 正己에 있어서는 孟子와 같은 연후에야 惡惡해도 허물이 없다하여 好賢 惡惡에도 너무 모나지 않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을 대하는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方法을 제시하고 있다.

- 以正應詐—정직으로 거짓에 대응하기
- 以詐應詐—거짓으로 거짓에 대응하기
- 以恕待人—용서로서 대하기
- 以薄待人—야박하게 대하기
- 怠於事而 以僞應人—일에 태만하고 허위

문서 대하기

(6) 四四端과 臟器와의 연계

獨行篇 후반부에는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의 기본 내용이 되는 臟器와 四端과의 연계가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東武는 臟器를 연계시키기 전에 孟子의 性善說을 언급하

며 堯舜과 衆人이 타고날때부터 天性을 같이 받았는데 또한 같이 받은 것이 바로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라 말하며 연계를 시작하고 있다.

우선 耳目鼻口와 聽視言貌(事四端)을 논하며 衆人은 私에 가려 堯舜과 다름을 그리고 肺脾肝腎과 學問思辨(心四端)을 논하며 衆人은 慾에 가려 堯舜과 다름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惻隱之心(仁) 出於肺 四端과 肺脾肝腎
辭讓之心(禮) 出於脾
羞惡之心(義) 出於肝
是非之心(智) 出於腎

을 연계시키고 있다.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에서 人之才德이 나오므로 잘 닦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人之慾은 出於志意魂魄(物四端) 한 다하였고

人之私는 出於屈伸動靜(身四端) 한다하여 사람의 精神氣血과 身首股肱은 大人과 小人이 서로 治國平天下하고 富家貴身하며 誠心敬身하고 放心懈身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獨行篇의 후반부에는 東醫壽世保元 四端論과의 연결을 이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臟器와의 연계를 설명해 놓고 있으며 四象構造的 知人論이라 할 수 있는 事心身物로의 각 四端의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四四端은 儒略, 反誠箴에서 더욱 그 내용이 구체화되게 되며 四象人의 설정에 있어 根本 哲學으로 사용되어 진다. 그러나 獨行篇에서는 아직 性情에 대한 概念 설정이 미미한 상태로서 喜怒哀樂의 표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없으며 그러한 관계로 四象人에 대한 것은 없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다만 鄙薄貪懦者의 구분으로 그 胎動의 조짐을 보여 줄 뿐이다.

參 考 文 獻

1. 朴奭彥譯：格致彙，서울，太陽社，1985.
2. 李乙浩，洪淳用；四象醫學原論，서울，杏林出版社，1982.
3. 論語集註，서울，明文堂，1978.
4. 大學，서울，明文堂，1980.
5. 孟子集註，서울，明文堂，1979.
6. 中庸，서울，明文堂，1978.
7. Adolf Guggenbuhl-Craig, M. D.; 精神의 義自律性, 서울醫大精神醫學, 제 14권, 제 3호, 1989, p.178-179.
8. G. 용; 自敍專, 서울, 汎潮社, 1985, p.536.
9. B. 릿셀; 西洋哲學史(上), 서울, 集文堂, 1980, p.123.